

대중회 참배단 중국 권현인비릉 추도식 봉행

권영성 참배단 단장 한국 풍속대로 높이8m, 둘레60m 권현인비릉 봉분에 잔디 조성 중국에 요구



중국 조장시는 '한국 안동권씨 중친회 대표 일행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전광판과 함께 참배단을 환영했다. 왼쪽부터 역성구 관광국 국장 추이명(崔蒙), 권태복 회장, 권영성 회장, 권정자 회장, 권영성 상임부회장, 장사오퉁(張曉東) 역성구 외사과장, 송전명(宋均峰) 역성구 외사처 국장, 권영식 회장, 권영자 회장, 권건중 사무국장, 왕비야오(王彪) 우흥관광개발공사 총경리

안동권씨 대중회 권현인비 추도 참배단은 10월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중국 산둥성 조장시 역성구에 있는 권현인비릉을 참배했다.
권현인비(복야공과 16세손)는 주원장의 아들로 명나라 제3대 황제 영락제의 1비로 황후 서거 후 황후 역할을 수행하던 중 황제 영락제가 북방세력을 정벌하기 위해 친정(親征)에 나섰다가 북방을 평정하고 남경으로 귀환하는 도중 산둥성 제남에서 공비 여씨의 모략으로 서거하여 역성구에 안장되었다. 그 이후 안동권씨 후손 중 600여년 동안 권현인비를 기억하고 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가 얼마 전 안동권씨 종보를 통해 권현인비의 존재가 전 족친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이 소식을 접한 여러 족친들이 대중회 차원에서 권현인비 추모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아 1차 참배단을 모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초 9월6일 3박 4일 일정으로 잡혔던 계획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10월 19일로 연기되고 일정 또한 축소되어 7명의 참배단으로 겨우 구성할 수 있었다.
참배단은 단장 권영성 상임부회장, 권건중 사무총장, 권태복 금천지역중친회장, 권영갑 수원지역중친회

장, 권영식 인천지역중친회장, 권정수 서초지역중친회장, 권정자 제천 예술인협회 회장 등이 참가했다.
10월 19일 첫째 날은 조장시를 방문하여 짐을 풀었다.
10월 20일 둘째 날에는 조장시 역성구의 초청을 받아 조장시 역성구 관광국 국장 추이명(崔蒙), 장사오퉁(張曉東) 역성구 외사과장, 송전명(宋均峰) 역성구 외사처 국장, 왕비야오(王彪) 우흥관광개발공사 총경리 등으로부터 "문화재로서의 권현인비의 보호와 관광산업으로써 석류단지 및 한류타운의 계획으로 285억 위안 상당의 투자 계획에 대한 설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점과 청단사 주변에 조성된 100만평의 석류나무 숲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 등 자세하게 브리핑했다.
뿐만 아니라 청단사 주변에 당나라 때 세워진 천년 고찰 청단사(靑檀寺) 그리고 1500년 이상 되는 청단나무 38그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영성 참배단 단장은 인사말에서 "권현인비 후손으로서 권현인비 추모를 계기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 또한 중국 측에서 극진히 환영해 주셔서 고맙고 또한 기쁘다. 앞으로 권현인비 추모사업을 바탕으로 안

동권씨 대중회의 중국 조장시 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조장시에서 권현인비릉 성역화 계획에 따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을 보면 신라 10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경주에 어느 시대 누구의 왕릉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산처럼 큰 왕릉의 봉분과 봉분 주변에 잔디를 심어 보기 좋게 관리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문화재로 입증되



낭방분: 시급(市級) 중점 보호문화재 권현인비릉 표지석

어 유네스코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에는릉에 잔디를 심는 문화가 없다고 하니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 만약 지금 현재 권현인비릉 위에 자라고 있는 나무를 캐고 우거진 잡풀도



권현인비릉 입구에 권현인비 초상과릉 축조 당시의 상황을 글로 묘사하고 있는 입석.

동쪽은 사자산 서쪽은 코끼리산
두 마리 용은 아침 햇살 비추는 물위를 노니는데
심만 장평은 봉분을 에워싸서
봉황산 앞에 황후를 장사지내노라
東山獅子西山象
二龍戲水面朝陽
十萬壯士兜泥土
鳳凰山前葬皇嫻
(번역 편집국장 권행완)

제거하여 한국의 왕릉처럼 잔디를 심어 보기 좋게 조성한다면 대중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의향이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참배단은 브리핑이 끝난 후 청단사를 둘러보고 쓰수간(時樹干) 역성구 구장의 초대로 극진한 만찬과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점심만찬을 마치고 권현인비릉으로 이동하여 "600년만의 만남,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평안을 누리십시오."라는 현수막을 걸고 초헌관 권영성, 아헌관 중국 왕씨, 종헌관 권건중으로 분정하여 608년 만에 조출한 그렇지만 역사적인 추도식을 봉행했다.
권현인비릉은 뒤로는 봉황산이 자리하고 있고 동쪽은 사자산, 서쪽은 코끼리산, 남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펼쳐 있어 릉은 명당 중의 명당이고 주변 풍경 또한 절경 중의 절경이라고 관리인 왕거지 에서는 설명했다.
권현인비릉은 높이 8미터의 봉분과 둘레 60미터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 봉분은 30킬로미터 밖에 있는 땀의 흙을 옮겨 와 쌓아서 만들었다고 한다.

권영성 상임부회장은 장사오퉁 외사과장의 안내로 권현인비릉을 둘러보던 중 봉분 중간에 묘지석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외사과장에게 "이건 예(禮)에 절대 안 맞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중국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10월 21일 방문 셋째 날 참배단은 곡부를 방문하여 공자묘와 공자 사당 등을 방문하였다. 공자묘 역시도 봉분에 잡풀이 무성했다. 공자묘 방문을 끝으로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러나 매우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제1차 참배단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역만리 타국에 영면하고 있는 권현인비 제1차 참배를 모두 마쳤다. 참배단은 권현인비릉이 중국 정부에 의해 조만간에 성역화 될 계획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만도 크 나른 성과라고 말했다.
앞으로 대중회에서는 중국 조장시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제2차 제3차 참배를 추진할 예정이다. 족친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청된다.

社告

始祖 太師公 秋享祭 案內

제462회(권기 1089년) 추향제는 역사와 전통을 살려 권문의 대동단결과 명예회복을 위해 대대적으로 향사를 거행하고자 하오니 100만 족친은 날씨가 춥고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0시 (陰 10月 14日 中丁)
- 장 소: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능동재사)
- 참석대상: 고문단, 회장단, 지역중친회장, 이사, 중무위원, 청장년회장단, 부녀회장 등
- 준비사항: 유건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大堂會: 2018년 11월 20일(화) 오후 6시
- 연락처: 서울 02-2695-2483~4
안동 054-854-2256

안동권씨 대중회장

11월 임원 선임 및 회비 납부 내역

임원 선임	
<부회장>	
권기식(전 청와대 국정상황 실장)	
권영희(전 한라대 교수)	
<부회장 회비>	
권영익(수석 부회장)	1,000,000원
권기식(전 청와대 국정상황 실장)	1,000,000원
권영희(전 한라대 교수)	1,000,000원
권오기(전 부총재)	1,000,000원
<중무위원 회비>	
권오창(영주)	200,000원
권경택(서울)	200,000원
<이사 회비>	
권민호(산청)	300,000원
총계: 4,700,000원	
안동권씨대중회	

공항으로 가는 가장 편안한 길!

행복한 여행의 시작과 끝을 공항리무진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컨템포디보



인천공항 전경